

어떤 다리를 건널 것인가?

The hardest thing in life to learn is which bridge to cross and which to burn. (David Russell)

인생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일은 건너야 하는 다리와 버려야 하는 다리를 구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러셀)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데이비드 러셀(David Russell)은 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꽤 명성이 있는 프리랜서 작가다. 그런데, 그는 러셀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듯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이 있고, 영국태생의 기타리스트인 동명이인 데이비드 러셀 (David Russell)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도 러셀이라는 이름을 한 번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러셀은 책을 많이 읽는 분이라면 버트란트 러셀 (Bertrand Russell)일 경우일 것이며,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기타리스트인 데이비드 러셀(David Russell)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러셀은 프리랜서 작가이며, “인생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일은 건너야 하는 다리와 버려야 하는 다리를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것이 옳은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경우라면 그래도, 선택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사회규범, 법률에 따르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는 어떤가요? 동시에 두 길을 갈 수는 없기에 우리는 한쪽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가다가 되돌아오면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에 직면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은 나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저도 지금부터 좀 더 생각의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다리를 건널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좀 더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는 “어떤 다리를 포기할 것인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리를 포기할 것인가?”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글귀가 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제목을 쓰라고….